

01.22 회의록

사용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것!

1. 공유하는 방식을 더 줄일 수 없는가에 대한 고민

모바일 웹 사이트로만 구현할 경우 저장할 URL 복사 후 우리의 웹 사이트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만 하는 아주아주 불편한 로직으로 구현해야 함.

해당 절차를 주리기 위해 PWA를 도입. 모바일 디바이스의 고유 기능인 "공유하기" 버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당 절차를 간소화.

과연 이것이 가장 편한 방식인가? -> 아님

앱으로 구현 시 오버레이 기능을 사용하여 오버레이된 우리의 서비스 아이콘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화면의 URL을 가져오는 방식 구현 시도 가능.

우리의 페이지에서 React Native를 추가하거나, Cordova를 사용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것.

2. 사용자가 직접 분류를 해야하는 불편함에 대한 고민

이전에 폐기된 내용이었던 카테고리 기반으로 자동 분류를 고민하였으나 카테고리 기반으로만 분류를 할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보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일을 두 번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음.

각 보드마다 문장 유사도나 키워드 (핵심 단어)가 나온 횟수, 추천 알고리즘의 로직 적용 등 다양한 사용자 맞춤형 최적화 과정을 통해 만족도가 가장 높을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함.

하지만 절대로 모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100%의 정확성을 가질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음.

분류를 우리가 해주는 것과 사용자가 직접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편한가에 대한 고찰 필요.